

## 문화 콘텐츠 흥행에 국제정세의 변화가 끼치는 영향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를 다룬 역사영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anging cultural contents by  
International Situation

Focusing on the historical films of Korea and China

주 저 자 : 박재현 (Park Jae-Hyun)

광운대학교 (박사과정)

pjh@mrb.co.kr

## Abstract

Korea has recently launched K-content, leading the Oriental Culture, and has been actively working and actively working. In Korea, the film that deals with the ancient history of Joseon Dynasty in Korea is rare, and the work of the history movie, except fantasy or drama, is not actually a few. In this study, where China is geographically appearing in the three-way history films that deal with the ancient history of Korea. Identify the points that are historically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look at the changes in China's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have been screened by these historical movies and the change in the emotions for China. Focusing on the film, China's 'Northeast Process', and Korea's 'THAAD Placement', confirmed the favorability Chinese national leaders in China. Identify the points that are historically a problem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look at the changes in China's relationship between these historical movies and the change of the emotions to China, accordingly. In addition, as a result as China, between Korea and Japan. It would like to have a chance to identify and prepare for the fact that there is a factor in the production and promotion of content through the time of the time ripple effect of cultural contents than any time.

## Keyword

Culture Industry (문화산업), Media (미디어), Content (콘텐츠), Influence

## 요약

우리나라는 최근 K-콘텐츠를 앞세워 수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동양 문화권을 주도하며 활발한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기적으로 조선 이전의 고대사를 다룬 영화는 드물기도 하고 판타지나 드라마를 제외한 역사영화라 부를만한 작품은 실제로 몇 편 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다룬 <황산벌>, <평양성>, <안시성> 세 편의 역사영화에 지리적으로 인접국인 중국이 등장하고 있는 공통점을 확인하고, 양국간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들을 파악했다. 또 이들 역사영화가 상영된 각시기의 대중국 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살펴본다. 영화의 흥행기록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한국의 '사드배치' 등 중국 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중국과 중국 국가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를 확인해 이런 요인들이 중국을 다룬 역사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확인해 본다. 중국만큼 우리나라와 역사적 관계가 깊은 일본의 사례도 들어 여느 시기보다 문화 콘텐츠의 파급효과가 크게 느껴지는 시대를 맞아 연구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과 홍보 외에도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비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내용

### 2. 이론적 고찰

- 2-1. 고대사를 다룬 역사영화

- 2-2. 고대사의 고증 문제

- 2-3. 대중국 관계의 변화

### 3. 현황과 중요성

- 3-1. 역사 해석의 차이

- 3-2. 국가 간 감정의 변화

- 3-3. 흥행 기록

## 4. 결론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대사에서는 중국, 근대사에서는 일본을 손꼽을 만큼 과거 역사에서 유난히 주변국과 분쟁이 잦았던 우리나라가 이들에게 기술력으로 맞설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오히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만큼은 온라인 웹의 발전을 등에 업고 꾸준히 활동해온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유행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미 우리나라는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를 앞세운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 곳곳에 유행처럼 번져 나갈 무렵, 강대국으로 불리면서 한국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한 인접 국가 중국과 일본에서 경계의 날을 세우듯이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제재(制裁)당한 경험이 있다. 언론, TV 방송 등으로 시작된 국가 차원의 감정 대립은 온라인에서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비방 댓글이 연이어 등장하며 자국민의 자연스러운 동참을 유도했고, 체제에 순응하는 듯한 감정적 처벌<sup>1)</sup>로 인해 한국의 콘텐츠는 각국에서 일순간 자취를 감춰 버렸다.

우리나라의 역사영화 중, 고대사를 다룬 영화는 세 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 편의 영화 모두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다루는 서사를 담고 있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어렵사리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개봉한 영화는 상영 시기를 보아 첫 편을 제외한 후속작들이 흥행에 있어 예상 이하의 성적을 거둔 결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영화가 대중에게 선택받지 못한 원인 중, 소재와 연출 이외의 각 영화의 개봉 시기에 대(對)중국 관련 사건들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영화 상영 시기 별,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국 호감도를 확인하고 그 수치의 변화가 영화 흥행 성적에 영향을 미쳤는가 비교해 본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세계화 글로벌 문화라 불리며 통합된 문화 콘텐츠의 유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찾아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가 되

1) 이기현.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국제관계연구, 23(2), 2018.,41-65.

### 참고문헌

있으면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내용

한국 영화 중, 판타지나 신화를 제외하고 고대사를 배경으로 다룬 역사영화로 <황산벌>(이준익,2003), <평양성>(이준익,2011), <안시성>(김광식,2018) 세 편의 영화를 들 수 있다. 역사영화의 제작이 어려운 이유를 들자면,

첫째, 역사영화는 그 시대를 재현한 세트와 로케이션, 연기자의 전통 복식 등 많은 제작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한국 역사의 삼국시대로 불리는 고대를 다룬 몇 안 되는 영화를 살펴봐도 영토 문제에 기인한 방대한 스케일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 전장(戰場)의 표현과 수많은 출연 배우들의 출연료로 인한 제작비의 증가로 보통의 영화보다 손익분기점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역사영화, 특히 고대를 다룬 영화의 제작 편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영화 제작에 있어 사실 왜곡에 대한 비판이 두려운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부족한 사료 또는 부정확한 기록을 근거로 방대한 스토리를 이끌어야 하는 역사영화의 특성상, 흥행을 위한 허구의 내용을 더해 관객의 흥미를 돋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역사영화를 접한 대중은 미디어 매체 중 내용 전달에 있어 가장 효율이 높다 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통한 정보를 자칫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이 이따금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 역사에서 기록이 미비한 조선(朝鮮) 이전의 고대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종합 예술이라는 애칭에 걸맞게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복식(服飾)이나 식생활을 연구하는 전통 계승자들,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국가 차원의 관심에 더욱 조심스럽다.

셋째, 과거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 극을 전개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고 이를 통해 주

변국과의 정쟁(政爭)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역사영화 제작이 힘든 큰 이유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고대사를 다룬 한국 영화 세 편에는 우리나라와 지리적 인접국이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 관계에 있는 중국이 서사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황산벌>(이준익,2003)이 개봉된 2003년 무렵은 1992년 이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중국의 '동북 공경' 논란 촉발 시기와 일치한다. 뒤이어 <황산벌>의 후속작으로 제작된 <평양성>(이준익,2011)의 개봉시기는 한중(韓中)간 비자 발급 요건 완화와 한국의 대중국(對中國)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 등의 중국 호재를 겪던 상황이었으며, <안시성>(김광식,2018)은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로 촉발되어 2017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같이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겪는 중 개봉되었다. 개봉 시기별로 중국의 대외정책 그중에서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재 등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을 바라보는 호감도를 여러 언론과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한령과 같은 중국의 감정적 처벌<sup>2)</sup> 태도가 역으로 중국을 소재로 우리나라 영화 콘텐츠의 국내 흥행에까지 영향을 끼쳤는가 확인해 본다.

## 2. 이론적 고찰

### 2-1. 고대사를 다룬 역사영화

한국사에서 고대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와 고구려와 백제 멸망 후 발해가 세워진 남북국시대, 신라 말엽 후삼국 시대까지를 말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치열한 영토 분쟁은 지배국의 정통성을 내세우는 정책의 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역사만 남기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멀지 않은 근대 이전의 조선에 대한 기록으로 흔히않게 우리나라의 정사로 분류되는 '조선왕조실록'이 전해진다. 한국 영화에서 역사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대부분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사건이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마치 정사(正史)인 양 관객에게 비추어질 수 있다는 특수한 이점을 가지

2) 앞의 1).

고 있다.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상'이 부각 된 것이다.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픽션 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는 신빙성이 더해진 영화는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픽션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래 '픽션'이란 극이 사실(Fact)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은 허구(Fiction)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영화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다큐멘터리 형식의 자막을 넣는 방식으로 '사실에 근거함'을 강조하며 허구보다 사실에 무게를 두어 관객이 극을 실제 사건으로 착각하게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픽션 장르의 정의는 대중들이 영화의 내용을 근거로 역사를 추리하도록 왜곡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기도 해서 용어 사용 전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 사극영화 중 시대는 조선 이전, 개봉 연도순으로 정리한 결과 총 9편의 영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역대 박스오피스 데이터이다.<sup>3)</sup> 한국영화 중, 판타지나 신화를 제외하고 고대사를 배경으로 다룬 역사영화는 <황산벌>(이준익,2003), <평양성>(이준익,2011) 두 편과 표에서 제시한 자료 이후 개봉한 <안시성>(김광식,2018) 세 편의 영화를 들 수 있다.

[표 1] 한국 사극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2015년12월 기준

제목	감독	개봉	장르
은행나무 침대	강제규	1996	판타지
단적비연수	박제현	2000	사극
황산벌	이준익	2003	코미디
천년호	이광훈	2003	사극
무영검	김영준	2005	액션
중천	조동오	2006	액션
쌍화점	유하	2008	드라마
평양성	이준익	2011	전쟁
협녀, 칼의 기억	박홍식	2015	사극

역사영화는 역사 기록에 기대어 제작해야 한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고, 시대적 배경이며 사건이 역사적 사

3) <한국 사극영화, 2015년 12월 기준>,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역대 박스오피스, <http://dj.kbs.co.kr>, 검색 2020.11.02..

실에 근거해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황산벌〉은 삼국시대 말, 백제의 멸망 시기를 그린 영화로서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고구려의 연개소문, 백제의 의자왕, 신라의 김춘추, 당나라의 황제(태종의 아들 고종으로 추측됨)가 모여 4자회담을 갖는 자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하늘이 내린 천자(天子)임을 주장하며 신라의 조공을 막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을 타하는 당나라의 황제. 회담은 서로를 욕하며 결렬되고 곧이어 백제, 의자왕의 조정 회의에 당나라군이 배를 몰아 인천으로 들고 있다는 파발과 신라군이 출병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고된다. 조정 대신들은 고구려를 침공하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출병한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백제를 향한 군사행렬을 확인하고 오합지졸 군을 정비해 맞서게 된다.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을 칼로 벤 후 전장에 임한 계백 장군의 일화와 함께 시작된 황산벌에서의 결사전. 장막 뒤의 첩보와 전장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지략으로 여러 차례 적을 물리친 계백 장군의 용맹함에도 백제는 많은 수의 군사 앞에 패배하고 멸망을 맞는다.



[그림 1]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2003, 〈평양성〉2011.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고구려를 다룬 영화 〈평양성〉을 요약하면 황산벌에서의 전쟁에 패배한 백제의 멸망도 8년, 이후 다시 진영을 갖춘 신라와 당나라의 회담 현장에서는 고구려와의 전면전에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설전을 벌이며 시작된다. 고구려의 대마리지 연개소문은 적을 맞아 전력으로 임하지만 결국 전사한다. 신라의 김유신은 고구려 연개소문의 차남 남건과 연합을 시도했지만 자신을 제치고 후계자로 지목된 차남 남건에 반발해 당나라에 투항한 장남 남생의 배신으로 고구려도 결국 백제에 뒤이은 멸망을 맞게 된다

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안시성〉은 시기적으로 앞의 두 편의 영화 〈황산벌〉과 〈평양성〉보다 앞서 당태종 이세민의 고구려 침공을 막아낸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장군을 그리고 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첨예한 대립을 했던 당의 50만이 넘는 대군을 군사지원 조차 받지 못한 고립된 상황에 처한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성민들과 함께 지략으로 지켜낸다는 내용이다. 양만춘 장군이 적 진영의 토굴을 파서 적진영의 토산을 무너뜨렸다는 내용과 당태종을 향해 화살을 날려 한쪽 눈을 맞췄다는 이야기는 역사학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설화적 요소가 강하다.

## 2-2. 고대사의 고증 문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다룬 역사서에는 앞서 조선의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정사로 들 수 있는 삼국사기(고려 1145년, 김부식)와 이에 반해 야사(野史)로 분류되는 삼국유사(고려1281-1283, 일연)를 들었다. 삼국사기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김부식의 주도 아래 사관들이 편찬한 ‘50권 9책’의 역사서로 당시의 많은 역사책을 수집, 인용했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왕권 중심의 체제 아래 삼한, 가야, 발해의 기록은 보이지 않아 많은 내용이 걸러졌다는 단점이 있다.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이 개인적으로 적은 역사지만 ‘5권 2책’으로 자유로운 서술과 삼국사기에서 볼 수 없는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삼국시대를 다룬 이야기들 그리고 전설과 신화, 신라 향가 등 많은 민속 사료가 실려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화에서 고증을 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당시기에 어떠한 복식을 갖추고 있었느냐일 것이다. 우리나라 고대 생활과 관련된 의, 식, 주에 관한 사료들은 극히 적어 고분의 발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 “경주 황남동 고분서 장신구 추가 출토, 46년 만에 전신 치장 유물 일체 쏟아져, 키 170cm의 최상위 계급 여성 가능성”이라는 경북 경주 고분 발굴기사<sup>4)</sup>를 통해 신라의 전통 복식에 대해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 고분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지위는 어떠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년 만의 유물’이라는 오랜 기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런 발굴조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 진행 중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4) 이순녀, 〈금동관 쓰고 은허리띠 차고 1500년 전 신라 ‘귀족패션’〉, 〈서울신문〉, 02면, 2020.09.04..

### 2-3. 대중국 관계의 변화

현대사에서 한중 양국관계를 살펴보면 양국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1998년 김대중, 장쩌민 정상회담 후 선언한 ‘협력 동반자 관계’이고, 2003년 7월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 5월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까지 용어를 통해 그 강도가 더해지고 발전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한중 관계는 필요에 의해 협력을 내세우기도 하고 서로 반목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관계 발전이 있었다 평가할 수 있다.

[표 2] 한중 수교 25년의 성과 및 주요사건

이) 한중 수교 25년의 성과 및 주요 사건	
1992년 8월	8월 24일 한중, 양국, 중국베이징에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
9월	노태우 대통령, 한국 국가원수로 첫 방중, 양상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1994년 3월	김영삼, 장쩌민 정상회담 통해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합의
1998년 11월	김대중, 장쩌민 정상회담 후 한중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
2000년 6월	6월-7월 한국,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 ‘마늘분쟁’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3년 6월	중국 광명일보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 논문 게재로 동북공정 논란 촉발
7월	노무현, 후진타오 정상회담 통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2004년 2월	‘고구려사 문제는 민간 차원 학술문제로 해결’ 합의
2004년 말	중국, 한국의 최대 교역국 부상
2008년 5월	이명박, 후진타오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0년 10월	한국, 중국인 비자발급요건 대폭 완화(6월) 후 국내 체류 중국인 수 60만명 돌파

5) 장젠(張健), <한중 관계에 직면한 도전과 제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9749>, 2012.10.08. 검색 2021.03.14..

6) 양정대, <수교 25주년, 한중관계 현주소>, <한국일보>.

2010년 말	한국, 대중국 수출액 1,000억달러 돌파
2013년 6월	박근혜, 시진핑 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이듬해 7월 시주석 방한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 확인
2015년 9월	박근혜, 시진핑 주석과 텐안먼 광장 망루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2016년 7월	한미,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발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독일 베를린서 시주석과 첫 정상회담

2015년 한중간 본격 자유무역협정(FTA)이 있기 이전, 2000년대 무렵의 마늘 분쟁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으로 한중관계가 지속될지 가능하기 힘든 시기도 있었다. ‘마늘분쟁’은 한국이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30%인 관세율을 315%까지 인상하는 일에서 기인했고, 이에 중국은 한국의 가전휴대폰과 한국산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사건이다. 마늘 분쟁은 한국의 관세율 원상복귀로 끝났지만, 중국의 무역 보복앞에 굴복한 선례를 남겼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간의 역사로 인한 갈등은 중국이 2002년, 역사 프로젝트를 내세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점, 고구려가 중앙정부(당나라)와의 내전을 통해 완전히 멸망해서 소멸했다는 점, 그리고 고구려의 멸망은 필연적인 역사의 순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 한다는 시도라 보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지키려는 학계와 언론의 대응으로 맞섰고 양측의 감정 대립은 그 수위가 높아졌다. 실제로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에서 시작,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도록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가적 사업이다. 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8232039350340>, 2017.08.23., 검색 2021.03.05..

7)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 으로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여러 연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

8) 이기환, <고구려는 조기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입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사료를 정리한다는 명분하에 그들이 수집한 자료를 내세워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출간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이에 대응해 민간 차원에서 동북공정 이전의 중국 역사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의 정사로 알려진 24사에는 중국의 역사와 주변국 관련 내용을 열전에서 기록하고 있다. 기록 가운데는 한민족과 여러 이민족의 역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국경을 접하고 대립해 접촉이 많았던 고구려의 역사는 <고구려전><sup>9)</sup>으로 적혀 있어 풍부한 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 중국정사조선전,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사기(史記)	조선열전(朝鮮列傳)	수서(隋書)	동이열전(東夷列傳)
한서(漢書)	조선전(朝鮮傳)	구당서(舊唐書)	동이열전(東夷列傳) 북적열전(北狄列傳)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	신당서(新唐書)	북적열전(北狄列傳) 동이열전(東夷列傳)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구오대사(舊五代史) 외국열전(外國列傳)
진서(晉書)	동이열전(東夷列傳)	신오대사(新五代史)	사이부록(四夷附錄)
송서(宋書)	이만열전(夷蠻列傳)	송사(宋史)	외국열전(外國列傳)
남제서(南齊書)	동남이열전(東南夷列傳)	요사(遼史)	이국외기(二國外記)
양서(梁書)	동이열전(東夷列傳)	금사(金史)	외국열전(外國列傳)
위서(魏書)	열전(列傳)	원사(元史)	외이열전(外夷列傳)
주서(周書)	이역열전(異域列傳)	신원사(新元史)	외국열전(外國列傳)
남사(南史)	동이열전(東夷列傳)	명사(明史)	조선열전(朝鮮列傳)
북사(北史)	열전(列傳)	청사고(淸史稿)	조선열전(朝鮮列傳)

2014.10.08..

9) 중국사서는 고구려인의 성격을 “그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용악하고 급하며, 기력이 있고 전투를 잘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국경을 접하고 대립하고 있는 고구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사기(史記)에서 청사고(淸史稿)에 이르는 24종의 중국 정사에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국 고대 국가의 사료가 중국 왕조의 본사인 ‘본기’와 구별되어 ‘동이열전’ 또는 ‘외국열전’과 같은 별도의 항목에 기록되었다. 중국정사조선전에는 한중 교류 관련 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남긴 생생한 풍습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sup>10)</sup>

<고구려전>이 <동이열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위의 내용을 볼 때 고구려는 중국의 이민족, 독립 국가로 존 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항의에도 중국 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일이라 변명에 일관했고 급기야 2006년 핀란드 헬싱키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ASEM)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에게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문제 제기했다. 2006년 10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연이어 조치를 요구했고 2007년 들어서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 왜곡과 한국역사의 중국역사 편입 시도에 속수무책이던 우리는 극도로 고조된 중국의 민족중심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 3. 현황과 중요성

#### 3-1. 역사 해석의 차이

<황산벌>은 7세기 한반도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료 중 삼국사기(三國史記) 본기(本紀)와 열전(列傳)에 등장하는 기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 시기 백제는 무왕(武王)이 적극적 대당외교(對唐外交)로 체제 개편을 통한 왕권 강화를 도모한 데 반해 의자왕과 직계 왕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왕권 강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백제의 642년부터 655년의 정계 개편의 결과가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의자왕은 즉위 초, 642년부터 정변이 엿보일 정도의 인위적인 인사 개편을 시도했다고 2.3.의 일본서기(日本書紀)를 통해 알 수 있다.

역사 기록의 미비함을 같은 시기의 주변국의 역사를 통해 보완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일본서기>는 일본의 역사책이면서 백제의 기록(한국사 관련 정보)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正史)로 일본의 자주성과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역사 왜곡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백제와 가야계

10) <중국정사조선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검색 2020.11.02..

의 국가 등 일본과 관련 있던 한국사의 사료가 많아 교차검증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국통일 후에도 수백 년을 더 통치했던 신라에 의해 발간된 삼국사기는 신라 위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과 삼국사기(1145년) 보다 4세기 이른 시기(720년) 백제가 멸망한 지 수십 년이 채 안 된 시기에 발간되어 백제 측 기록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우리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사료이다. <평양성>의 고구려 패망시기, 대당투항으로 배신의 낙인이 찍힌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sup>11)</sup>,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알려진 차남 남건에 관해서 익히 우리에게 알려진 바를 최근 들어 중국의 역사서를 참고해 달리보는 학자들도 있다.

<안시성>에 등장하는 양만춘이 안시성의 성주라는 기록은 '동춘당일기(송준길), '열하일기(박지원), '성호사설(이익)을 통해 전해지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조선시대 기록이다. 삼국사기에 적은 안시성 전투에는 영화 <안시성>에 등장하는 성주 '양만춘' 장군의 기록이 없고, 저자로 알려진 김부식이 안시성주를 칭송하는 내용이 있으나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고 적었기에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일화로 알려진 '온달'은 삼국사기에 등장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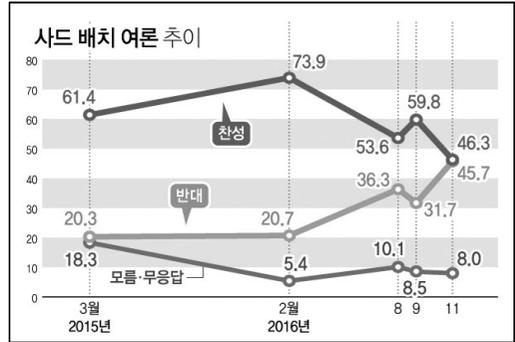
역사 속 사건들은 콘텐츠 제작자인 영화 감독들에 의해 역사학자들의 시각과는 달리 표현되었다. 세 편의 영화 중,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과 <평양성>은 지역 감정을 표현한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의 대사 처리, 그리고 '복讎' 문제가 대두된 남과 북의 대립을 표현하려는 듯 등장한 이복 사투리가 들어있다. 민초(民草)를 대변하는 '거시기'를 통해 신분과 계급이 폭력이 만든다는 명제의 코믹 요소를 가미한 연출이 돋보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평양성>은 삼국시대 말, 백제의 멸망 시기를 그린 전작 <황산벌>의 후속작으로서 황산벌 전투로 백제가 멸망한 지 8년이 지난 시기(660년) 고구려의 멸망(668년)을 다루고 있다 해서 영화도 8년이 지나고 개봉했다는 뒷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 3-2. 국가 간 감정의 변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적 우호국인 북한보다 오히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사건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한다. 이어서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되고 한중 경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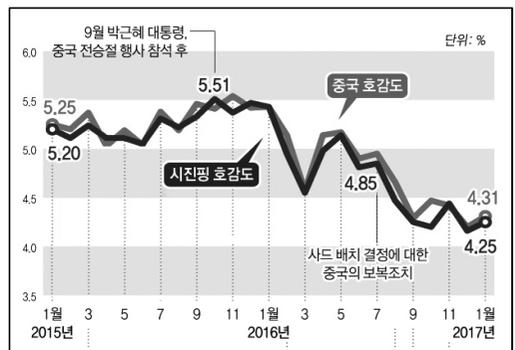
11) 김진한. <高句麗 滅亡과 淵蓋蘇文의 아들들>. 한국고대사탐구, 22( ), 2016, 117-143.

류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한국과 중국은 협력에 집중했다.



[그림 2] 사드배치관련 여론조사.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하지만 2016년 7월, 주한미군은 한국에 고고도지역 방어체계(THAAD)배치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임을 강조해온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간의 모든 협력 관계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퇴보했다. 평가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사업 철수의 위기까지 이어질 정도로 타격이 컸다. 북한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세운 사드 배치는 한국 내에서도 그 지지율의 변화가 컸다.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여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정부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 53.9%에 이어 '대중국 관계 악화 우려가 22.7%로 뒤를 잇고 있다.'<sup>12)</sup>



[그림 3] 중국에 대한 호감도 추이.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12) 김지윤, 강충구, 이지형,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2017.05.19..

### 3-3. 흥행 기록

2003년 6월은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으로 반중<反中> 감정이 야기되기 시작했고, 연이은 7월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이 있어 중국에 대한 관심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2003년, <황산벌>은 비수기인 10월에 개봉했지만 전국 278만 관객 (2,771,236명)을 동원하여 예상외의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평가받는다.<sup>13)</sup> 이어서 한중간 협력은 급격히 호조를 보이는데, 2004년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 2008년 무렵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선언, 2010년 비자발급 완화로 인한 관광특수, 2010년 말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까지 중국 특수가 이어진다. 이때 개봉한 <평양성>은 전작 <황산벌>에 이어 우리 역사에 깊이 관여하는 중국의 나쁜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정작 모두의 관심은 현재, '중국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이다.

*"사실 지리멸렬이다. 140만 명 넘는 정도다. 사극은 제작비가 많다. 250만 명 넘어야 손익분기점이다. 안될 것 같다. 이번에 실패하면 은퇴한다고 선언했는데..."<sup>14)</sup>*

2011년 2월의 설날연휴 한 주 전 개봉한 <평양성>은 총 제작비 80억원, 손익 분기점인 260만 관객에 한참 모자라는 170만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고 막을 내린다. 이준익 감독은 평양성이 개봉됐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질문에 성적이 좋지 않다 답한다.



[그림 4] <안시성>2018, 출처: 네이버영화(포스터).

13) 역대 박스오피스 112위, 한국사극영화, 2015년 12월 기준, KBS 데이터저널리뷰팀.

14) 김준술, <왕의남자 '평양성', 역사 파고드는 영화감독 이준익>, 중앙일보, 섹션6면, 2011.02.19..

<안시성>은 2018년, 최대 성수기라 불리는 추석과 연말에 개봉했음에도 가까스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지만, 이마저도 해외 판매실적을 포함한 성적이다. 2016년 7월의 사드배치 사건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우리 국민의 중국 호감도가 급격히 낮아진 시기이기도 하지만 뒤의 '경험의 반복'에 나올 중국시장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가 조심했던 시기였다.

### 3-4. 경험의 반복

2012년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한때 큰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마나 보이 밴드, 걸 그룹이 갑자기 일본의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후 일본의 보수 언론과 TV 프로그램에서는 우익의 험한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일본내 자국민들에 한국 관련 정책의 강경 대응을 유도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림 5] 일본 TV야사가 문제 삼은 BTS 멤버 지민이 착용한 티셔츠, 출처: 서울신문 2018.11.11..

2018년 무렵,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은 세계적 인기몰이의 결과 일본의 오리콘차트에서 주간 싱글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일본 내의 공연, 콘서트까지 매진 상황을 이뤘지만 멤버 중 '지민'이 월드 투어 중 착용했던 '애국심'과 '해방', '한국의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문제 삼아 TV야사와 NHK 등은 방송 출연을 취소, 험한 정서를 되살리며 보이콧 했다. 이 과정에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기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혀 마무리가 되는 듯 험한의 수위는 수그러들었지만, 당치 않은 억지에 고개를 숙인 듯한 아쉬운 대응은 한국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sup>15)</sup>

일본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시기에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분야에서 무역과 관광분야의 회복 조치는 물론이고 그간 케이팝으로 불리우며 인기를 얻은 한국의 대중음악, 그리고 수 많은 중국내 팬들을 거느린 한국 드라마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이제는 발 붙이기조차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정계, 재계, 문화계는 속수무책이었다. 여러 행사의 취소에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제작자들은 가장 큰 고객인 중국시장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중국의 직접 압력은 없었고 사정상 연기되었다는, 잠정 보류 되었다는 발표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었다. 한국의 케이팝이 한중 관계의 첫 번째 피해자라며 문화 콘텐츠가 입는 피해에 집중해 바라보는 시각은<sup>15)</sup>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일본 내(內)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로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관계자들, 그 누구도 적절한 대응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5. 결론

이미 우리나라는 'K-POP'을 필두로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중동지역과 유럽까지 인기가 급속도로 번져가는 한류열풍(韓流熱風)의 현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유형의 변화와 과거 우리가 그래왔듯이 개발도상국으로 여겨지던 국가들의 발전으로 자국 콘텐츠 제작과 보호에 힘쓰는 현상때문에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은 점점 그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국가 간의 정치문제로 문화 콘텐츠의 흐름이 제재(制裁)를 받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의 적절한 정책 지원과 홍보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조유빈, <역사 반성없이 '한류 보이콧'만 하는 日극우>, 시사저널, 1519호, 2018.11.23..

16) Amy Qin and Choe Sang-Hun,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Deal Appears to Sour China's Taste for K-Pop>, The New York Times, 2016.08.14..

본 연구는 문화 콘텐츠 중 인접국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중국과의 고대사를 다룬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흥행의 성적이 영화 개봉 시기의 중국과의 정치적 상황, 국민의 중국호감도 변화등에 영향을 받았는가 확인했고, 이를 통해 필요한 대응 계획의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이 어떤 대응안을 마련하기는 힘든 사안이기도 하고, 그 중심 주제가 문화 콘텐츠임을 감안하면 정부차원의 조치도 쉽지않은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룬 한국 영화 세 편의 경우와 같이 당시 정세의 변화가 영화의 흥행에 미치는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조한 흥행 실적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글로벌 문화'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현대에 문화 콘텐츠의 흥행에 세계 각국의 정책적 행보와 이런 주변 정세를 느끼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 감정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확장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통제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례를 통한 자료의 지속적 수집과 적극적 활용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김지윤 외, '한반도 사드(THAAD)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2017.
2. 김진한, '高句麗 滅亡과 淵蓋蘇文의 아들들', 한국고대사탐구, 2016, 22호
3. 이기현,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국제관계연구, 2018, 23(2)
4. 장젠(張健), '한중 관계에 직면한 도전과 제안', 중국국제문제연구소, 2012.10.08
5. Amy Qin and Choe Sang-Hun,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Deal Appears to Sour China's Taste for K-Pop', The New York Times, 2016.8.14
6. 김준술, "왕의남자" '평양상', 역사 파고드는

- 영화감독 이준익', 중앙일보, 2011.2.19
7. 양정대, '수교 25주년, 한중관계 현주소', 한국일보, 2017.8.23
8. 이기환, '고구려는 조기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입니다', 경향신문, 2014.10.8
9. 이순녀, '금동관 쓰고 은허리띠 차고 1500년 전 신라 '귀족패션'', 서울신문, 2020.9.4
10. 조유빈, '역사 반성없이 '한류 보이콧'만 하는 日극우', 시사저널, 2018.11.23
11.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12.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http://dj.kbs.co.kr>